명량대첩 감동, 울돌목 현장에 CG로 펼쳐진다

30일~10월2일 '명량대첩축제'…명량트롯가요쇼·강강술래 등
해군-해양경찰청 전함 콜라보 해상퍼레이드…체험부스도 운영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컴퓨터그래픽스(CG)로 새롭게 재현된다. 지금까지 어선을 동원해 어민들이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가로 20m, 세로 5m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울돌목을 스크린에 그대로 담아내고 해상전투를 CG로 그려내는 것을 시도한다.

2022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진도~해남 울돌목에서 열린다. CG를 활용한 미디어 해전 재현, 명량트롯가요쇼, 강강술래 경연 등이 펼쳐진다. '울돌목 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597년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세계사에서 빛나는 명량해전의 감동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첫 날인 30일에는 영화 '명량'과 최근 '한산(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개막식이 이어진다. 명량대첩 미디어 해전 재현을 시작으로,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이날치 밴드공연, 드론&불꽃쇼 등이 이어진다. 명량대첩 해전 재현은 진도 승전무대에서 축제 마지막 날까지 오후 7시 이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10월 1일은 해남 오구굿,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등 전통공연과 전국청소년 가요제, 유명 트롯가수인 김용임, 조항조가 참여하는 명량트롯가요쇼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온겨레 강강술래 한마당은 화합과 협동을 통해 위기 극복의 수단이 된 강강술래 경연대회로 전국 20여 팀이 다양한 모습의 강강술래를 선보인다.

10월 2일은 진도 다시래기, 평화의 만가행진, 우수영 부녀농요 등 당시 희생된 조선수군과 일본수군의 넋을 달래고 평화와 안정을 기리는 공연이 마련됐다. 축제 기간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44일간 역사적 사실을 전시한 8개 시군의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8개 체험부스를 모두 방문해 정보무늬(QR)코드로 인증을 받은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또 해상퍼레이드는 해군과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전함이 콜라보로 울돌목 바다를 가르며 늠름하게 행진하는 장면을 통해 바로 눈앞에서 우리 해양 국토방위의 기상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축제장 주변 관광지도 즐비하다. 해남엔 대흥사, 달마산 도솔암, 공룡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고산윤선도유적지 등이, 진도엔 운림산방, 진돗개테마파크, 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상설공연), 진도접도웰빙길, 송가인마을&송가인 공원 등이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올가을 3년 만에 울돌목 현장에서 열리는 명량대첩축제와 진도·해남의 자연풍광, 볼거리, 먹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힐링여행 코스가 될 것"이라며 "특히 명량대첩축제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 민초의 호국·희생정신을 느끼고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만끽하는 특별한 여행을 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량해전을 CG로 재현한 모습. 오는 30일부터 3일간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기간에 진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젊음의 향기…'광주청년주간' 개막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축제 '2022 광주청년주간'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졌다. 24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광주지역 K-pop 댄스팀들이 춤실력을 뽐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내륙에서 동해로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에 이어 동해에서 예정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했으며, 이번에도 일부 구간에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에 맞춰 이번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강습단은 오는 26~29일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칠 예정이며, 고강도 연합훈련이 예상됨에 따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본사인사

▲한동훈 : 중부취재본부 담양주재 기자

〈9월 26일자〉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실내는 유지…"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적 실천 필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된다.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으며,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넘기고 일상방역으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에 따라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산책로나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다만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강제적 조치를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 자율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한 상태다.

국내에선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5일 0시 기준 사흘 연속 2만명대(2만 5792명) 신규 확진자를 유지했다. 광주·전남도 1000명대(광주 640명, 전남 747명)에 머물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특수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오천경매.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고단296 사기등
• 피고인 : 박 영 민

위 피고인은 사기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2년 9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 효 성

해산공고(1차)

당 회사는 2022년 09월 23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어 현재 해산절차를 진행 중 인바,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주식회사 광양인터내셔널물류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4로 20(황길동)
청산인 박 용 훈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세종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식회사 청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영담(이하"피합병법인")은 2022년 9월 2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음-

1.채권자 이의제출
(1) 제출 기간 :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 제출 장소 : 광주시 북구 무등로 204 세종중흥건설 주식회사 본점 사무실

2022년 9월 26일
세종중흥건설 주식회사
광주시 북구 무등로 204
대표이사 정 원 주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 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세종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식회사 청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영담(이하"피합병법인")은 2022년 9월 2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해산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 주권 제출 및 실효절차를 안내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음-

1.구주권제출
(1) 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주식회사 청원건설산업 본점 사무실
(2) 제출 기간 :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채권자 이의제출
(1) 제출 기간 :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 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주식회사 청원건설산업 본점 사무실

2022년 9월 26일
주식회사 청원건설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대표이사 배 강 진

산행안내

10월1일(토)

▲광주호산회 10월1일(토)〈청와대탐방후 북악산트레킹〉 오전 05시 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5시30분 롯데백화점 05시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